

2022년 국토교육 동아리 탐구보고서

(지이오 이노베이터)

지리·역사 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연구
- 서울 북촌 일대를 중심으로 -

2022년 10월

새롬고등학교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II. 이론적 고찰	3
1. 도시재생의 개념과 범위	3
2. 근대 역사문화 환경과 도시재생의 관계	4
3. 역사 건축물을 활용한 도시재생 국내 사례	4
III. 대상지 선정 및 분석	7
1. 대상지 선정	7
가. 대상지 선정 기준 및 배경	7
나. 대상지 위치 및 특성	8
2. 서울 북촌 주변 지리·역사적 고찰	9
가. 북촌 가회동 한옥길	9
나. 익선동 한옥마을	11
다. 세운상가	13
라. 청계천	15
IV. 결론 및 향후 계획	20
참고 문헌	21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많은 도시문제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런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이념의 변화와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더니즘 시대의 도시는 자동차의 발달과 혁신적인 기술의 진보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추구하여 고층화, 대형화, 획일화 된 도시를 만들어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과의 단절이 일어났으며, 도시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정체성이 상실되어 갔으며, 자동차 중심의 공간구조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를 붕괴시켰다. 이로 인해 도시는 보다 인간과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기를 시도하였으며,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최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도시는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면서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 하고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 가지는 특성을 부각시키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이 중심이 된 교통체계가 이루어지고, 도시의 사람들 간에 커뮤니티의 형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도시의 개발과 환경의 변화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도시 속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도시개발은 신도시로 대표되는 새로운 미개발지,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 기반 시설의 투자가 새로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 등에 대한 개발보다는 기존 개발지역,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유흥지, 도심 내 낙후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이 최근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이 과거 모더니즘 시대의 도시재개발과 구분되는 가장 특징은 전통의 계승 및 전통의 현대적인 해석과 문화예술의 도입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이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은 도시재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도시 내 주요 공간인 도심부는 경제, 사회, 문화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대 역사문화환경의 보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이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이며, 발행위와 근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은 상호 상반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근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은 가치 있는 개발행위로써 도심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연한 제도와 다양한 개발기법을 통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자에게는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도심의 역사적 장소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활용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이 에 따라 도심 개발에 있어 근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기법 및 제도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이천복 외,2008).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근대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 도시의 일정지역이나 지구를 일체적, 총체적으로 보전하거나,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의 근대 역사문화환경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정비, 관리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 및 기법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도시재생은 그 개념 및 목표가 근대 역사문화환경의 활용과 일맥상통하여 두 가지 부문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도시재생에 있어서 근대 역사문화환경을 현장 체험학습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근대 역사문화환경이 향후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도시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개별 역사문화 유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가 아닌, 지역 또는 도시 차원에서 접근하는 근대 역사문화환경의 활용을 통해 향후 도시재생 근대 역사문화환경 활용을 통해 교과시간에 배운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공감하는 체험학습 자료로 소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 역사문화를 활용한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근대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중고교 현장 체험학습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분석하고자 하는 근대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는 국외의 사례와 국내의 사례로 나누어 분석한다. 또한 기존의 역사문화 환경의 전통을 이어가며, 개선하여 발전시켜 도시재생을 한 사례와 역사문화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여 도시 재생을 한 사례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지방 중소도시 일반계 고등학교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았다.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다양한 인문학적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분석 방법은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사례와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중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1번지인 서울 중구 북촌 일대를 지리, 역사, 문화적 환경을 분석하도록 한다.

탐방 코스에 비해 시간의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여줘서 가능했던 이 프로그램은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사제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유익한 국토탐방의 한 형태이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된다.

II. 이론적 고찰

1. 도시재생의 개념과 범위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대도시지역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고 도심부 쇠퇴를 방지함으로써 도심지역의 인구 및 산업을 촉진하고 재활성화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은 사전적 의미는 ‘도시의 생기를 되살려내기’로 시대에 뒤쳐진 도시를 재활성화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에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는 도시기능을 전반적으로 재활성화 하는 의미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집중 논의되고 있다.(이주형,2009)

이러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공간구조의 재구성, 토지이용의 합리화, 물리적 정비사업과 함께 적절한 프로그램 주입을 통해 도시를 재활성화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제도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김세용,2008)

도시재생은 단편적인 측면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내용은 물리·환경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제도·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1> 도심재생기법의 개념 및 주요 내용¹⁾

구분	목표	전략 및 주요내용	도심재생요소
물리 환경적 측면	·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구조 및 도시형태 · 도시토지의 입체적 고도이용 방안 모색 · 용도지역제의 유연적 활용 제도적 기법 모색	· 물리적 환경의 질 개선, 환경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디자인기법의 도입, 도심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오픈스페이스 확보, 대중교통 확대	· 고밀도 고층건축 설계 방식 채택 · 복합용도의 개발 · 노후건축물의 재활용 · 보행자 공간 확충 · 도심부 밀도관리 강화 · 교통수단 연계체계
경제 사회적 측면	· 도심부의 정체성 회복 및 지역사회 복원 · 균등한 기회제공 등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 · 기반시설 수용능력과 개발의 동시성 확보 · 소매업활성화를 통한 인구 및 산업의 도심회귀	· 지역경제 연계 프로그램 개발, 생산력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 입주 기업 및 사업체 수 확대, 지원시설 입지계획, 경제기반 향상 · 투자의 다양성 확보, 빈곤 및 실업문제대처, 사회적 형평성 추구, 주거안정적 공급, 교육 및 훈련기회 제공, 주민참여활성화, 보건 위생개선, 삶의 질 향상	· 오픈스페이스 연계체계 추구 · 기존녹지 및 생태계보존 · 역사문화 공간의 보존 및 시설 확충 · 저소득층 주거공급확대 · 소매업활성화

1) 자료: 오덕성 외6인, 성장관리형 도심재생의 모형설정 연구 I, 한국과학재단, 2002.

제도 정책적 측면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이념의 추구 · 도심부의 부활(urban renaissance) 추구 · 정부간 역할 분담 및 주민 참여 기회 확대	· 점진적 균형개발, 자족적 경제기반의 구축, 주변 지역 또는 경쟁도시 전략 벤치마킹 · 현행 전략의 지속적인 보완, 주민의 만족도 향상, 주민참여도 강화 및 제도화 정착	· 도시형 첨단 산업 육성 · 지방정부의 자율성 재고 · 관련계획 간의 연계성 강화 · 도심재생 기본계획수립 · 주민참여 조직의 다양화 및 체계화 · 민자 협력형 도심재생 추진 기구 구성
-----------------	---	--	---

2. 근대 역사문화 환경과 도시재생의 관계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 중에서 역사문화 환경을 보전하고 재생하여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인식키는 것은 도시를 보다 가치 있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강홍빈,1986)

도시는 변화하고 적응해가는 조직체로 여러 가지 목적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도시는 생성, 성장, 쇠퇴의 과정을 통해 경제적, 문화적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문화적 의미와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건축물, 구조물, 도로, 구역 등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줌으로써 삶의 연속성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구도심은 수많은 역사적 장소, 건축물, 가로조직, 과거의 일상 생활환경 등이 자리하고 있는 근대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장소로 역사문화적으로 도심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시가지와 다른 개념으로 도시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현재 구도심의 상황을 자원으로 보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비를 통해 도심의 재생과 근대 역사문화 환경의 보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 속의 근대 역사문화 환경을 보전한 정비작업은 근대기의 도시의 이미지 구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도시 역사성·정체성 및 장소마케팅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근대 역사문화 환경을 근대기의 공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대 이전의 시간부터 근대를 거쳐 현재까지의 의미에서 재해석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환경 요소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여 도시재생의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한영숙,2004)

3. 역사 건축물을 활용한 도시재생 국내 사례

‘서울 미래유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중지정·등록문화재로 등재되지 않은 유무형 자산²⁾ 등의 명소를 대상으로 하는 보전사업이다. 또한 서울 미래유산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념

2) 유용완, 거리의 차별적 특징 요소를 활용한 상징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0-11

의 대립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 세계화와 다양화 라고 하는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산출된 유산 중 서울 시민들의 공통 기억과 감성이 내포된 것을 보존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의 총체적 유무형 문화자산 활용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다.³⁾

장소마케팅은 상품이 아닌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도시의 상징적인 인식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야 할 도시의 유무형 자산이다.⁴⁾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내 안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개발과 보존의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미래를 대비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국내 학계 또한 기록물 관리에 관심이 커지면서 역사문화적 장소에 관하여 국가 역사의 기록에서 개인 역사의 기록으로, 공공 기관의 행정 기록에서 일반인의 일상의 기록으로 연구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그림 1> 군산 근대문화유산마을



<그림 2> 감만창의 문화촌

역사문화 유산의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 시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한 접근방식을 크게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휴먼웨어적 접근방식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⁵⁾

<표 2>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뮤지엄⁶⁾

구분	국내 역사문화 콘텐츠 박물관 및 전시관
공공기능(2곳)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광양역사문화관
교육기능 (3곳)	배재학당역사박물관, 한밭교육박물관, 이화박물관
문화 및 집회기능 (3곳)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 건국대학교 박물관
산업기능 (1곳)	수도박물관
상업기능 (1곳)	짜장면박물관
업무기능 (17곳)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일민미술관, 신문박물관, 대구근대역사관, 인천개항박물관,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부산근대역사관, 임시수도기념관, 목포근대역사관1관, 목포근대역사관 2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인천아트플랫폼, 군산근대미술관, 군산근대건축관
의료기능 (1곳)	서울대학교 의학박물관
주거기능 (4곳)	서울역사박물관 경교장, 백인제가옥,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해곡 최순우 기념관

3) 신창희, 서울 미래유산의 의미와 활용 유형, 글로벌문화콘텐츠 학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2016년 동계, 2016, p.268.

4) 박혜영 외, 도시 비전과 전략으로서 도시브랜드 활용방안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제34호 Vol.13 No.2, 2015, p.55.

5) 조광호,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의 쟁점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p.3

6) 조양영선,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뮤지엄의 운영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p.39-40

양영선(2018)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국내 역사문화 콘텐츠 박물관 및 전시관은 공공기능부터 주거 기능 까지 8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



<그림 3> 북성로 공구박물관



<그림 4> 양림동 근대문화유산 마을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가들의 작업공간과 거주 공간을 동시에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 교류 및 체험의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나 관 주도로 공간을 재생시킨 탑다운 방식의 종속적 재생이라는 비판의 형태로서 갖는 한계도 나타났다. <그림. 5>7)



<그림 5> 인천아트플랫폼8)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방치된 공장 또는 창고에 예술가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된 것이 아닌 지자체의 예산 투입으로 조성된 공간이기에 문화예술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9)

보존이 아닌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공법에 맞지 않는 복원으로 인해 부조화를 이루는 점이 문제로 나타났다. 관 주도의 도시재생은 예산의 확보에 대한 편리한 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형성과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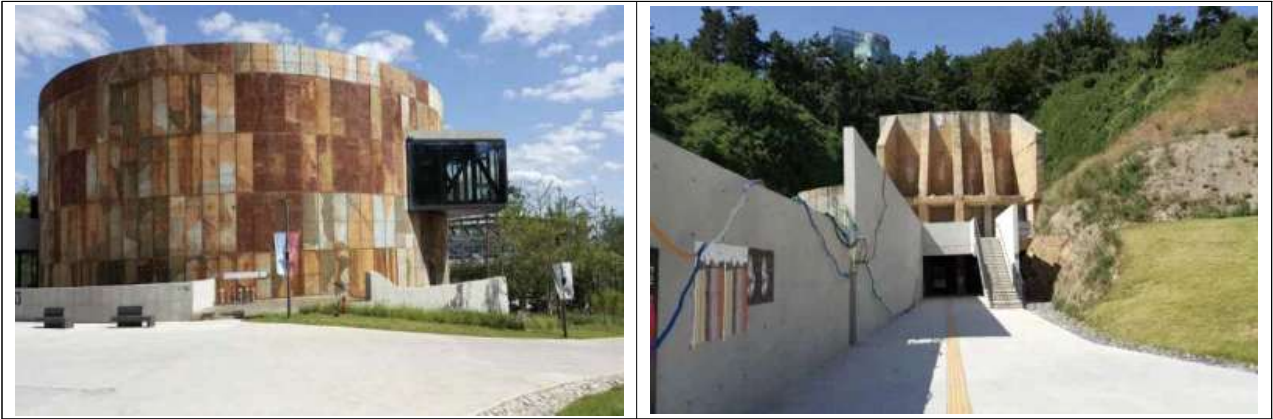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매봉산 일대에는 과거의 산업유산인 석유비축기지가 있었다. 석유비축 기지는 1973년 석유과동 이후 만들어진 비상 대비 민수용 유류 저장시설이다. 그러나 석유비축

7) 선우해봉 외, 구도심 근대산업유산의 도시재생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3권 제1호, 2017, p.312.

8) 사이다 맞나는 세상, 사진찍기 좋은 곳 인천 아트플랫폼, <https://blog.naver.com/bk85219/220898746146>, 2019.08.02.

9) 최강립,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계획 사례연구, 국토 계획 제4권 제2호, 2019, p.29

기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 위험 시설로 분류되어 탱크의 석유를 모두 이전한 후 폐쇄되었다. 1급 보안시설로 분류되어 건설 당시부터 민간인들의 접근과 이용이 철저히 통제되었던 석유비축기지는 폐쇄한지 40년이 지난 후에(비축기지 24년, 폐쇄 후 15년)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왔다. 마포 문화비축기지는 사업비 총 470억원을 들여 완공했다.



<그림 6> 마포 문화비축기지¹⁰⁾

마포 문화비축기지의 아카이브는 장소재생 자료에 수집을 집중하며 석유비축기지 시절에서 조성과정에 이르는 아카이브 구축을 중심으로 일부 전시는 시각화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한 도시재생이 아닌 민간협치로 협력하여 진행된 도시재생으로 민간 차원의 회의를 보여주기 위해 회의자료들도 전시에 담아냈다<그림. 6>.¹¹⁾

Ⅲ. 대상지 선정 및 분석

1. 대상지 선정 기준 및 배경

가. 대상지 선정 기준 및 배경

1970년대 이후 도시개발정책으로 역사문화 환경의 중요성이 도외시되었고 난개발로 인해 근대 역사문화 환경이 사라져갔다.

이처럼 사라져가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고 정비하여 역사성과 정체성을 재인식시키고 마비된 상권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도심내의 역사문화 환경 지역 중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낙원상가 주변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서울 북촌 주변지역은 도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문화자원이

10)) (주)이엔건축사무소, 마포문화비축기지, <http://endesign.co.kr/221101478066>, 2019.08.02.

11) 최연희,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에서의 아카이브 기능 활용 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42.

풍부한 곳으로 대상지 내부는 주거, 상업, 업무시설들이 혼재되어 있고, 주변지역에는 역사문화 자원이 산재하여 있다.

본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 내 전통주거지 밀집지구 중 근대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서 문화재적 가치는 없지만 역사·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

둘째, 보존할 만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주변의 개발 압력을 받고 있어 효율적인 계획이 필요한 곳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 북촌한옥마을은, 대상지 내의 경복궁 주변의 종묘, 창덕궁, 운현궁, 인사동, 덕수궁 등 역사문화자원으로 둘러싸인 역사문화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한 반면, 종로로부터 밀려오는 개발의 압력이 강한 지역으로 효율적인 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나. 대상지 위치 및 특성

북촌에는 한옥의 아름다움과 북촌 골목길을 구석구석 즐길 수 있는 '북촌 8경'이 있다. 서울시는 한옥 주거지 북촌을 서울의 대표적 문화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북촌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지점 8곳을 지정해 방문객을 위한 사진촬영대(포토 스팟)를 설치하였다. 북촌의 중심적인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는 한옥 경관과 한옥이 주도하는 골목길 풍경이 주로 선정되었다.



<그림 7> 북촌 한옥마을 일대

북촌 한옥마을의 형성은 서울의 도시개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서울의 주택난을 가중시켰고 이러한 주택난에 따라 민간에 의해 진행되는 구획형 개발이 나타났다. 주택의 매매를 통해 이윤을 얻고자 하는 주택경영회사들이 등장하면서 1912년 이후 주택난으로 인해 중대형 필지의 분할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한옥들이 급속하게 건설되었다. 현재 북촌의 대표적 한옥밀집지역인 가회동 31번지, 11번지, 삼청동 35번지 일대 등도 모두 이때 주택경영회사(정세권¹²⁾의 건양사 등)에 의해 집단적으로 건설된 한옥 주거지들로서 대규모로 건설된 후 분양되는 방식으로 공급되었다. 이 시기 건설된 한옥들에는 유리나 타일, 합석창과 수도와 전기 등 이전에 쓰이지 않던 새로운 재료가 사용되었다. 또한 가옥 평면이 일정 부분 표준화되었으며 가로체계 등과 함께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전의 한옥과는 차이가 있다. 이것을 근대 한옥 또는 도시형 한옥이라고 부른다.

2. 서울 북촌 주변 지리·역사적 고찰

가. 북촌 가회동 한옥길



북촌 1경 - 창덕궁 전경



북촌 2경 - 원서동 공방길



북촌 3경 - 가회동 박물관길



북촌 4경 - 가회동 31번지언덕



북촌 5경 - 가회동 골목길(내림)



북촌 6경 - 가회동 골목길(오름)



북촌 7경 - 가회동 31번지



북촌 8경 - 삼청동 돌층계길

<그림 8> 북촌 8경

12) 정세권은 '건양사'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해, 북촌을 비롯해 익선동, 혜화동, 성북동 등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한옥마을 단지를 조성한 사람이다. '경성의 건축왕'이라 불리기도 했던 정세권은 일본식 가옥이 아닌 한옥만을 고집스럽게 건축하였다. 정세권의 활동으로 인해 한옥과 조선인의 주거지가 지켜졌으니, 공간적 항일운동을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북촌은 일제강점기 이후 점점 개발에서 소외되었다. 일본인들은 권력 있는 양반들이 주로 살고있는 북촌이 부담스러워 남촌의 힘없는 양반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주거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동안 일본인이 많이 살고있는 청계천 남쪽의 명동, 충무로, 후암동 등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한강 남쪽으로 개발의 중심이 이동하여 한강 북쪽에 위치한 북촌은 큰 변화를 겪지 않고 1930년대 조성된 한옥의 모습 그대로 유지되었다. 북촌이 개발의 중심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옥마을이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회동이 있는 북촌(北村) 지역은 경복궁과 창덕궁을 제외하면 전통적으로 풍수상 서울 최고의 길지이며,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귀한 공간이다. 그런 까닭인지 많은 권력자 또는 재력가들이 북촌한옥마을에 거주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파의 거주 공간이 되었다.



<민대식 - 이준구 가옥>



<박영효 - 윤보선 가옥>



<박흥식 - 정주영 - 정태수 가옥>

<그림 9> 유명인사들의 가회동 일대 가옥

가회동 1번지의 넓은 땅은 일제 최고의 친일파 민영휘와 변절한 혁명가 박영효가 차지했다. 민영휘는 민씨네 세도정치의 손발로 부를 축적했고 친일파로 변신하여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제일 갑부로 꼽힌다. 휘문고나 풍문여고, 남이섬 등이 바로 민영휘의 재산을 물려받은 서자들의 재산이다. 민영휘의 별장이 가회동에 있었으며 3만3500평에 이르는 가회동 산1번지 임야도 차지하였다. 가회동 31번지 5447평은 민영휘의 아들 민대식(現 이준구 가옥, 1938년 지음)의 주택이 건립되었다.

박영효 가옥은 고종 7년에 세워진 건물로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양반 가옥이자 가장 오래된 가옥으로 사적 제 438호다. 최초 이 가옥은 여흥 민씨가 1860년대에 건립했다. 개화파인 박영효가 잠시 거주한 후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고 윤치소(전 윤보선대통령 부친)가 매입한 후 윤보선대통령이 사용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조선교육협회가 발족되었고, 광복 후에는 한국 민주당의 산실이자 야당의 회합장소 등 정치적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백화점 화신백화점의 창업주 박흥식은 1931년부터 1988년까지 57년간 가회동 집에 거주했다. 이후 무역업자인 박우준씨가 집을 경매로 넘겨받았고, 2000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이 집을 매입하고 2021년 사망할 때까지 말년을 보냈다. 2003년부터는 한보그룹의 회장이었던 정태수씨가 2년간 세 들어 살기도 했다. 현재 이 집은 부동산 사업가로 알려진 정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촌 가장 위쪽에 위치한 가회동 1번지 일대에는 한화그룹 오너 일가가 창업주 시절부터 거주하고 있다. 현재 오너 2세이자 총수인 김승연 회장부터 그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까지 3대째 가회동 터줏대감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2002년 대선(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을 앞두고 후보 시절 살던 곳 또한 가회동 한옥이었다.(2022년 現 최은정 락고재 북촌 빈관으로 사용)

나. 익선동 한옥마을



익선동 한옥마을의 한쪽에 위치했었던 게시판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익선동 166번지 한옥 지구와 북촌 한옥마을은 서로 다르면서도 같은 점이 있다. 북촌이 당대 지주들을 위

한 비교적 큰 규모의 한옥 집단 지구였다면, 익선동은 중산층 이하 서민을 위한 한옥 집단 지구였다. 공통점은 두 지역을 모두 한국 최초의 근대 부동산 개발업자, 정세권이 건설했다는 점이다. 19.5㎡(15평) 안팎의 익선동 한옥 100여 채 중 50% 이상은 정세권에 의해 건축되었다.

익선동 166번지 일대는 한옥단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누동궁이라는 왕가가 위치했던 곳이다. 누동궁은 강화도령이라고도 불리는 철종이 출생하고 강화도로 가기 전 14세까지 자랐던 곳이다. 강화도에서 지내다 19세에 왕이 된 후 익선동 집터에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사당과 형 영평군의 집을 지어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게 했던 곳이다. 후에 누동궁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익랑(대문 좌우에 이어 지은 행랑, 노비들의 거주공간)이 넓어지게 되는데, 이 모습을 두고 '익랑골'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한성부를 5부(部) 52방(坊)으로 나눌 때 지금의 익선동은 중부 정선방(貞善坊)에 속한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통폐합)에 따라 익랑골의 '익'과 정선방의 '선'을 따서 이 지역을 '익선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익선동 166번지에 있던 누동궁은 영평군의 후손들이 계속 소유하다 4대 손인 이해승이 정세권의 건양사에 대지를 팔면서 1929년 익선동 한옥단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익선동은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에 따른 기대에 땅값이 폭등했다. 하지만 주민 간 의견 차이로 10년 이상 개발이 진척되지 못하여 허물거나 새로 짓지도 못한 채 기존의 한옥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재개발 계획에 의해 발전되지 못하고 낙후되어 가던 익선동은 젊은 창업가들에 의해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반까지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었가. 초반에는 주로 밥집, 카페, 가맥집(주점)이 들어섰으나, 최근에는 게스트하우스, 일반 상점, 공방 등도 입점하는 추세다. 익선동은 한옥마을이지만 용도구역 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옥을 리모델링해 상업 시설로 활용할 때 업종에 대한 제재가 없고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래서 북촌 한옥마을이 한옥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익선동은 한옥을 적극적으로 재건축하고 있다. 한옥의 흙벽을 뚫어 통유리를 내거나, 마당과 마루의 경계를 허물고 마당 천장을 유리로 덮는 등 카페, 식당, 옷가게 등 상업 용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재건축을 하고 있다. 2014년 카페가 처음으로 익선동에 들어선지 3~4년 만에 대부분의 한옥은 주거 용도에서 상업용도로 바뀌게 된 것이다.

2018년 4월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익선동 일대를 14년 만에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어요. 서울시는 익선동을 '서울의 마지막 한옥마을'로 지정해 기존 한옥을 최대한 보존하고, 돈화문로와 태화관길 등 가로변과 접한 곳의 건물 높이를 5층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2014년 이후 급격한 상업화로 익선동의 임대료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익선동의 한옥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곳을 떠났으며, 남아있는 주민들도 방문객에 의한 소음, 쓰레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11> 익선동 한옥마을

익선동의 피맛길은 익선동 한옥마을의 길 중 창덕궁에서 충무로에 이르는 돈화문로와 평행한 골목길은 조선시대 피맛길의 하나였다. 피맛길은 말 그대로 말을 피하는 길이라는 뜻이다. 말을 타고 다닌 양반들을 마주할 때마다 인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일반 백성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길이다. 창덕궁은 정궁인 경복궁보다 오히려 더 많이 쓰인 궁궐이에요. 창덕궁은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소실되고, 1868년 다시 지어질 때까지 경복궁을 대체하였기 때문이지요. 창덕궁이 오랜 시간 임금이 거처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공간으로 사용되었기에 돈화문로에 위치한 익선동의 골목길에도 피맛길이 형성된 것이다.

다. 세운상가

조선 개국 후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도시 계획에 의해 동서로 뚫린 종로는, 길을 따라 큰 상점들인 시전행랑(市廛行廊)이 있었고 뒤쪽에도 작은 상가와 가옥이 뻗뻗하게 들어찬 시끌벅적한 곳이었다. 하지만 태평양전쟁 말 연합군에 밀리기 시작한 일본은 대규모 화재를 유발하는 소이탄(燒夷彈) 공격을 우려하여, 종로에서 남산 기슭까지 멀쩡한 마을을 철거하고 남북을 가로지르는 길이 1킬로미터 폭 50미터의 소개공지(疏開空地)를 조성했다.

일본이 패망하고 한국전쟁 후에도 방치되었던 이 거대한 빈 땅에는 전쟁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과 월남한 이주민이 판잣집을 지어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이곳은 몸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종로3가’를 줄여 종삼(鐘三)이라 부르는 대규모의 사창가가 만들어졌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욕망이 만들어낸 빈 땅이, 또 다른 육체적 욕망으로 채워진 것이다.

1966년 4월 서울시장으로 부임한 '불도저' 김현옥 시장은 도심 한복판에 판잣집과 사창가가 있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전격적으로 이 일대의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부사장이었던 건축가 김수근은 종로3가에서 퇴계로3가까지 무려 1킬로미터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김현옥 시장은 '세상의 기운을 모으다'라는 뜻으로 세운(世運)상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한 사람의 정치적 야망과 또 다른 사람의 건축적 욕망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건축가 김수근이 계획했던 세운상가는 단지 기다란 건물이 아니라, 각 건물마다 파출소, 소방서, 초등학교와 공중정원 등 공공시설이 있고, 보행자만을 위한 공중 가로로 연결된 이상적인 입체 도시였다. 그는 프랑스 근대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가 설계한 거대한 집합주택[위니테다비타시옹(Unite d'Habitation)]을 참고하여, 세운상가를 통해 서울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싶었다. 외벽은 거대한 건물의 위압감을 줄이기 위해 유리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세운상가는 건축가 김수근의 의도대로 지어지지 않았다.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계획의 취지가 무색하게 각각의 건물은 각각 다른 민영 기업에 의해 건설되었고, 경제적 논리에 의해 원래 디자인은 무참하게 변형되었다. 서울시장 역시 이 일대 무허가 건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신의 치적을 홍보할 수 있는 거대한 기념비를 원했던 것이지, 이곳에 살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유리 외벽은 비싸다는 이유로 생략되면서 흉측한 외벽이 그대로 드러났고, 건물 양쪽에 계획되었던 3층 공중 가로는 을지로 위에서는 하나로 줄어들고 마른내길 위에는 아예 지어지지 않았다. 또한 공공시설도 들어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을 잘게 쪼개 분양하면서, 건축가 김수근이 계획했던 여유로운 공공 공간 개념은 사라져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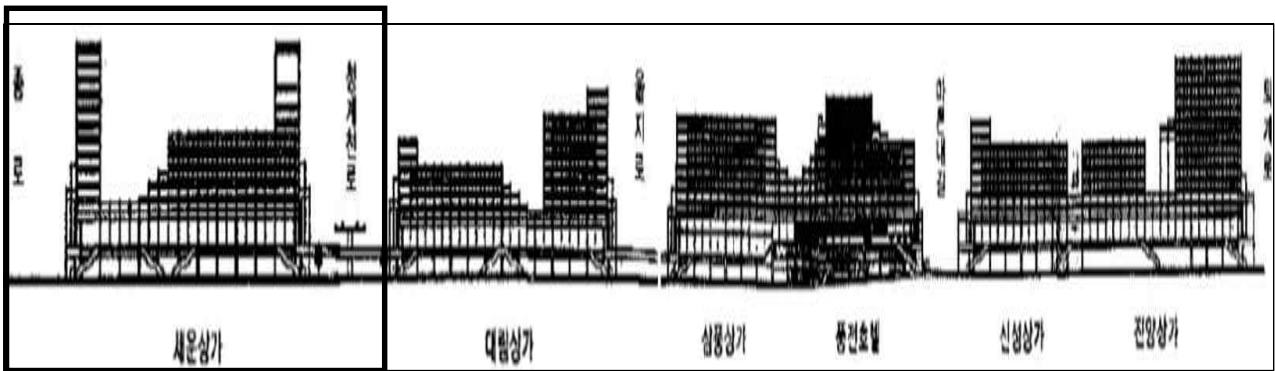
그래도 분양 초기에 세운상가 아파트는 연예인과 대학 교수, 고위층 인사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었다. 햇볕이 가득한 중정이 있고, 남산과 북악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 가스보일러와 엘리베이터가 있는 최신식 시설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부실한 시공과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강남 개발로 인해 한때의 인기는 사그라지고, 서서히 외면당하기 시작했다. 그 빈자리는 은밀한 욕망의 공간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1, 2층 전자상가의 그늘에서, 지상에서 잘 보이지 않고 도주가 용이한 3층 공중 가로는 은밀한 욕망을 사고파는 공간이 되고 말았다.

종묘-남산동을 잇는 1km를 보행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입체화시킴. 3층 레벨에서 보행자용 인공 데크를 설치하고 이 데크를 따라 상가가 설치되는 보행자몰(mall)이 형성되도록 함. 자동차 통행과 주차공간은 지상레벨에 설치함으로써 보차분리를 시도했다.

1~4층은 상가, 5층 이상은 아파트로 하는 주상복합건물군으로 연결시킴. 특히 5층에는 인공대지(elevated level)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원, 어린이 놀이터, 시장을 배치했다.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햇빛과 바람을 받아들이는 돔 모양의 아트리움 atrium) 공간개념을 도입하고, 또 아파트 부분을 한 층씩 올라가면서 후퇴하도록 하는 테라스(terrace)형 설계를 통해 건물의 위압감을 줄이도록 했다.

주상복합건물군의 개념을 외연적 확장을 통해 '도시내 도시(city in city)의 개념을 확대하려고

함. 총용적률을 300%로 하되 도로부분을 제외한 순용적률을 500%까지 확보했다. 건물군은 8층을 유지하되 간선도로와 만나는 곳은 타워형으로 고층화하여 시각적 변화를 추구하고 공간도 확보함. 1~4층이 상가이지만 2층과 4층은 보행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커피숍, 식당, 병원과 같은 제2선 서비스 기능이 배치되도록 하고 3층에서는 보행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을 구상함. 옥상에는 초등학교도 배치하여 입체적 복합기능을 가진 하나의 도시적 건축물이 되도록 했다. 세운상가를 전통적인 상업중심지인 종로거리, 패션중심지인 명동 등과 직접 상권으로 연계시켜 낙후된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는 거점으로 유지하려고 함. 인공데크를 설치하여 보행로를 확보했던 것도 종로, 청계천로, 을지로, 마른내길, 퇴계로와의 점점에 계단으로 연결시켰던 것도 주변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지속하려는 의도의 구체적 결과이다. 13)



<그림 12> 세운상가 건물군

라. 청계천

길이 10.84km, 유역면적 59.83km²이다. 북악산·인왕산·남산 등으로 둘러싸인 서울 분지의 모든 물이 여기에 모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왕십리 밖 살곶이다리[箭串橋] 근처에서 중랑천과 합쳐 서쪽으로 흐름을 바꾸어 한강으로 빠진다. 본래의 명칭은 '개천(開川)'이었다.

제3대 태종이 개거공사를 벌여 처음으로 치수사업을 시작하였다. 그후 영조 때에는 준설·양안 석축·유로변경 등 본격적인 개천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공사로서 내의 흐름이 비로소 직선화하였다. 순조·고종 때에도 준설공사는 계속되었는데 이 개천에 놓인 다리는 수표교·오간수교·광교·영미교·관수교 등 모두 24개가 있었다. 국권피탈 후 일제강점기 초(이때에 청계천으로 이름이 바뀜)에는 근대적 도시계획의 성격을 띤 대대적인 준설공사가 이루어졌다.

2003년 7월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 구간은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성동구 신답철교로 구간으로 5.8km에 이른다. 2005년 10월 1일 2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청계천 위에 놓여진 총 22개의 다리를 중심으로 정조반차도를 비롯한 역사적 자료를 복원한 도심 속 하천으로 개통하였다. 주요 다리로는 모전교·광통교·장통교·버들다리·두물다리 등이 있다.

청계천은 서울이 조선왕조의 도읍지로 정해진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권

13) 전우용 외 6, 2009, 청계천, 청계교가를 기억하며, pp.126~127를 바탕으로 재정리

인 도심부의 중앙을 흐르는 유서 깊은 물길이다. 그러나 청계천은 복원사업 전까지 중랑천과 합류되는 하류부 2.36km를 제외한 전 구간이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평시는 복개 구조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를, 강우 시는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제하는 대형하수도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청계천 복원은 노후된 청계천 내 구조물을 철거 후 자연 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홍수에 안전한 하천 기능을 회복, 수리적으로 안정하게 하여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을 복원, 지속적인 수변공간을 창출하여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를 재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계천에 유입되는 물은 하루 6만 5천톤으로 뚝섬에서 끌어올려 정수한 후에 이곳 청계천 상류로 보내진다고 한다.

청계천의 복원 사업으로 인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열섬현상 완화되었다.

청계천이 복원된 후 도심 주변의 열섬현상이 약화됐다. 기상청 산하 기상연구소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청계천 주변 지역에서 기온 분포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청계천 복원 후 주변 지역 기온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청계천 복원 전에는 청계천 주변 지역 기온이 서울 평균보다 약 2.2도까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계천 주변에 상업·업무용 건물이 집중된 데다 교통혼잡으로 인공적인 열 배출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원 후에는 청계천 주변 지역 기온이 복원 전보다 1.3도 낮아지면서 열섬 효과가 약화됐다. 청계천 내 녹지의 기온은 청계천 주변 지역보다 0.9도 낮았다.

둘째, 교통문제가 심화되었다.

복원 전의 청계천로는 고가도로를 합쳐 12차선, 그러나, 현재는 강 양쪽에 2차선씩 4차선으로 줄었다. 전국에서 상인들과 구매객들이 차를 몰고 청계천으로 몰려드는 오후시간대에는 교통체증이 더욱 심하다. 청계천 양안의 인도는 폭이 좁아 두 사람이 지나가기도 어렵다. 서울시는 청계천 관광이 쉽도록 설치한 곳으로 인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곳을 통해 보행하고 있다. 상가에 접한 인도는 조업이 이뤄지고 상품 하역을 위해 차량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인도의 폭이 1에서 1.5미터 정도에 불과해 통행에 적지 않은 불편이 따른다, 그나마도 유턴차선이 설치된 곳에는 인도가 끊겨 있어서 행인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서 상가쪽 인도로 건너간 뒤 다시 청계천변 인도로 건너가야 하는데 이런 불편을 감수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 인도가 끊겨진 유턴차선으로 그대로 걸어가는 경우를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때문에, 사고위험도 있다.

셋째, 직종에 따라 다른 파급효과가 이루어졌다.

청계천 복원 후, 하루 평균 방문객이 21만 명을 넘어서면서 그 일대 음식점과 술집 등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청계천 일대 상권은 세운상가, 전자제품, 동대문쇼핑센터 등의 기존 도매 상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청계천의 발원지인 태평로에서 삼일교가 있는 청계천 2가까지의 상권은 꽤재를 부르고 있다. 삼일교가 있는 청계2가는 패밀리레스토랑 아웃백, TGI, 베니건스와 시네코아 영화관 등 서비스 업종이 분포되어 청계천 방문객들이 많이

몰린다(종로권 포함). 또한, 청계2가는 종로2가와 가까워 청계천 파급효과가 인근 종로, 광화문 도심 상권까지 미치고 있다. 가족단위나 연인들이 청계천에서의 산책을 마치고 그 일대로 음식을 먹으러 가기 때문이다.

반면 세운상가에 이르는 청계2가에서 청계4가까지는 공구상가들이 즐비하다. 이 곳은 청계천 복원 후 방문객들의 차량이 늘어나면서 고객들이 진입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장사가 잘 안되어 매출은 예전보다 못하다. 공실도 늘었다. 하지만 청계천 기대효과로 임대료는 떨어지지 않고, 땅값만 평당 4,000~7,000만원을 호가 한다.

과거 청계천유역분지 시가지발달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은 한강의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분지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이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하천을 끼고 있는 침식분지의 경우 취락이 처음에 입지하는 곳은 규모가 큰 본류 하천연안이 아니라 분지의 주변산지에서 발원한 지류하천 연안이다. 이는 규모가 큰 하천은 계절에 따른 유수량 변동이 심하여 도시적 취락이 발달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도 가장 먼저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한강의 지류하천인 청계천의 유역분지였다.

청계천 유역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화강암 산지의 산록대는 취락이 발달하기에 좋은 지역이다. 화강암 산지의 산록대는 물이 맑아 식수로 적합하고 지반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경사가 완만하여 수분유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은 화강암이 심층풍화되어 배수가 잘되기 때문에 택지로 적합하다. 청계천 유역분지내의 북악산 남측산록대와 남산 북측산록대, 인왕산 동측산록대는 조선시대부터 취락이 발달하였고, 주거조건이 좋아 양반층의 거주지역이었다.

그후 조선시대부터 청계천 유역분지만으로는 서울로 유입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없어 주변의 구릉지로취락이 확산되었다. 조선시대 청계천 유역분지에 입지한 서울은 분지내에서 주거조건이 좋은 산지의 산록대부터 취락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구릉지 사면으로 확대되고, 침수의 위험이 있는 청계천주변의 저습지는 가장 늦게 주거지로 이용되었다.

청계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주요 지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계 광장은 청계천 시작 지점으로 광장과 낮은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보자기 모양"의 이색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석조의 돌들은 조선 8도를 상징하는 거석으로 꾸며져 있으며 만남과 화합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았다고 한다 .청계천에 유입되는 물은 하루 6만 5천톤으로 뚝섬에서 끌어올려 정수한 후에 이곳 청계천 상류로 보내 진다고 한다.

둘째, 광통교은 청계천 다리 중 가장 큰 다리로 "대광통교"라 부렀는데 줄여서 "광교"라고 한단다. 처음에는 토교(흙 다리)였으나1410년(태종10년)현재와 같은 돌 다리로 만들었다.

셋째, 정조 반차도(정조대왕 행열 벽화)는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회갑을 맞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으로 가는 "행차도" 를 "도자벽화"로 만든 것 (1,779명의 수행원과 779필의 말이 호위하는 어가 행진 모습으로 폭 2.4m 길이 192m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큰 그림)이다.

넷째, 수표교터는 1420년 (세종2년)에 돌다리로 만들어 졌으며 처음에는 다리 소와 말을 거래했던 "우마전"앞에 있었다고 해서 "마전교"했단다. 1441년에 다리 서쪽에 수표석(청계천의 수심 측

정)을 세우면서" 수표교"라고 했단다. 1958년 복개공사 때 장충단 공원으로 옮겼다가 1973년 세종대왕기념관에 옮겨 보관 중이다.

다섯째, 옥류천은 옥과 같이 맑은 물이 바위를 돌아 폭포처럼 떨어진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다섯째, 패션 광장은 인간과 자연의 상생과 조화를 주제로 제작한 "문화의벽"과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 올리는 하천 분수가 있는 문화공간이다.

일곱 번째, 오간수문터는 청계천의 물줄기가 도성 안에서 밖으로 빠져 나가는 다섯 개의 수문이 있던 곳이다.

여덟 번째, 청계천 빨래터는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고 아이들은 떡을 감으며 놀았던 청계천의 빨래터이다.

아홉 번째, 리듬 벽천은 벽면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색색의 조명이 조화로운 수경 시설이다.

열 번째, 소망의 벽은 청계천 복원사업에 서울 시민은 물론 지방 각 도시민, 이북5도민, 해외동포 등 2만 명이 참여한 소망과 염원을 직접 쓰고 그림을 그려 놓은 것으로 폭 2.2m길이 50m나 되는 벽이다.

열한 번째, 터널 분수는 분수에서 뿜어 나오는 물 줄기가 조명과 함께 화려한 터널을 이룬다고 한다.

열두 번째, 존치 교각은 청계고가 도로의 교각 3개를 철거하지 않고 남겨두어 후대에 역사적 의미를 갖게 한 것이다.

열세 번째, 청계 천문회관은 청계천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담아놓아 청계천을 이해 할수 있는 자료실이다.

열네 번째, 버들 습지는 청계천의 자연 생태를 보존하는 공간으로 버드나무와 각종 식물을 옮겨 심어 가꾸어놓은 곳이다.



<그림 13> 청계천에 사는 생물들

IV. 결론 및 향후 계획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 배운 지리 지식과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실제적 경험과 체험 활동을 통해 다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이번 동아리 활동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다. 특히 국토발전 전시관을 관람하여 우리 국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 일대 답사, 서울 중구 일대 답사 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하면 우리 국토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어 국토 사랑 의식이 함양되었다. 교사로서 늘 아쉬웠던 점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 학생들이 교과서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공간의 정보들과 특성들을 파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단순한 정보 습득 활동이 아닌 노작을 통한 지형의 이해, 현장 답사를 통한 지역적 차이 및 특성 탐구 등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아쉽게도 7월부터 8월 사이에 서울 및 세종일대 답사 활동 추수 활동에 대한 내용 동아리 성과 발표를 탐구보고서에는 포함할 수 없게 되었다. 12월 본교 축제 시에 활동 결과 홍보 활동으로 국토 교육 관련 홍보활동(카드뉴스, 캠페인 활동, 동아리 체험부스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록 계획한 모든 활동을 기한 내에 실행할 수는 없었으나 당초 이 활동을 통해 얻고자 했던 교육적 결실들은 충분히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지역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토대로 한 국토 균형 개발의 필요성이 학생들이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 층 더 성숙했다면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본 활동을 체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국토 전반에 대한 본교 학생들의 지리적 이해가 높아지는 것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 중심의 국토 교육동아리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동아리 지도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함을 다짐해 본다.

V. 참고 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https://www.sejong.go.kr/index.jsp>)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누리집(<http://www.balance.go.kr/base/main/view>)
- 전국지리교사모임(2016). 지리쌤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도시 여행. 폭스코너
- 심아름, 근대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을 통한 도시재생 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정용, 근대 역사문화 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양영선,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뮤지엄의 운영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유용완, 거리의 차별적 특징 요소를 활용한 상징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최언희,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에서의 아카이브 기능 활용 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최강림,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계획 사례연구, 국토계획 제4권 제2호, 2019.
- 오명선, 강영철,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 브랜드디자인학회통권 제51호 Vol.17 No.4, 2019.
- 박광신 외,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디자인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제44호 Vol.15 No.4, 2017.
- 박혜영 외, 도시 비전과 전략으로서 도시브랜드 활용방안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제34호 Vol.13 No.2, 2015.
- 신창희, 서울 미래유산의 의미와 활용 유형,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2016년 동계, 2016.
- 선우해봉 외, 구도심 근대산업유산의 도시재생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3권 제1호, 2017.
- 어정연, 장소가치 개념에서의 플레이스 브랜딩 평가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한국콘텐츠학회, 2013.
- 조광호,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의 쟁점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 사이다 맛나는 세상, <https://blog.naver.com/bk85219>
- 서울시교육청 공식매거진, <https://brunch.co.kr/@seouledu/>
- (주)이엔건축사무소, <http://endesign.co.kr>